

건설·조선 하청 임금 따로 지급…체불 고리 끊는다

■ 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30일 초과 도급사업에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

2027년 조선업 500억부터 3년 걸쳐 단계적 확대

내년부터 건설·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갈 임금이 다른 공사비와 구분돼 지급될 전망이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비용을 별도로 떼어주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됐는지까지 확인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

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에 고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대금 가운데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대금이나 자재비 등과 구분에 지급하는 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해당 비용을 근로자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재 구매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동안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적용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건설·조선업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도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제도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내년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연계한다. 구체적인 공사금액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의 일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건설현장에는 임금구분지급제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조선업은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도급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선박 1척당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까지 적용된다.

다만 조선업에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 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7년에는 선박 1

척당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어 2028년에는 240억원 이상, 2029년부터는 120억원 이상 사업으로 대상을 넓힌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임금명세서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자체적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조선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도 임금구분지급 관련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가 필요한 다른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구분지급제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제"라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대차 올해 파업으로 6만대 생산 차질 예상

노조, 10년만에 전면 파업 예고…포스코도 하투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누적 6만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반데 등 신차 출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남 울산공장에서 16차 교섭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은 19일부터 닷새간 추가 파업에 들어갔다.

19~20일, 24~25일에는 4시간씩 부분 파업하고 21일에는 8시간 전면 파업한다. 이는 2016년 단체교섭 때 이후 10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달 13일 이후 3차례에 걸친 부분 파업을 벌였으며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이달 12~14일 부분 파업을 이어가 오전·오후조를 합친 생산 중단 시간은 누적 88시간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오는 25일까지 파업으로 인한 전체 생산 차질은 6만

2000대, 매출 차질은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업계 외에 철강 업계에서도 하투는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전날 임금협상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최종 중지됐다.

이에 노조는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어려운 경영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사측과 추가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중구 민중노총에서 열린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 발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배민

친환경차·내연차 검사 기준 분리한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 기준을 분리하고,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성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등 24개,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21개 검사항목만 규정한다.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시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는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긴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연합뉴스

켄텍, 정보라 작가와 ‘문학에너지 발전소’

내달 9일 RC교육센터서 ‘너의 유토피아’ 작품세계 조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학생과 작가, 지역민이 함께 문학작품을 다양한 예술로 재해석하는 문학 행사를 마련한다.

켄텍은 다음 달 9일 RC교육센터에서 '문학에너지 발전소 2026 Talk! Talk! 문학에너지 발전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켄텍

작품이다.

행사에서는 작품 해설과 문학 토크를 비롯해 배우와 학생기획단이 함께하는 나레이션극이 펼쳐진다. 학생들이 직접 작가·작곡한 주제 음악 공연과 정보라 작가가 참여하는 북토크 및 대담도 이어진다.

켄텍은 학생들이 작품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과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작 상상력과 창의적인 표현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2세 이상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나주시 공고 제2026 - 1351호

「나주 세지우회도로 개설공사」사업인정(변경)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나주 세지 우회도로개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업인정 등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제출양식용지를 이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나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공사

○ 명 칭 : 나주 세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남광주통합특례시장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3.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나주시 세지면 백산리 ~ 세지면 오봉리 일원

○ 사업면적 : (당초) 37,553㎡, (변경) 37,292㎡, (감)261㎡

○ 변경사유 : 도로 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 편입 면적 감 반영

4. 사업 기간 : 2023. 08. 10 ~ 2028. 08. 0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반·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입 참조

6.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참조)

○ 열람기간 : 2026년 8월 19일 ~ 2026년 9월 1일(14일간)

○ 열람방법 : 아래의 장소에서 열람자료(용지도 및 계획면도 등) 열람

열람장소 : 나주시 건설과 토목팀 ☎061-339-8892

7. 주민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 제출기간 :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열람기간 종료일까지

○ 제출장소 : 나주시 건설과 토목팀

○ 문 의 처 : 나주시 건설과 토목팀 ☎061-339-8892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도로정책과 ☎061-286-7434

세상과 함께,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YouTube | 광남일보 iTV

광주전남의
생생한 뉴스와
현장 이야기

구독중요! 알림 설정으로
광남일보 iTV와 함께하세요!

LATEST NEWS

전기료 최대 10%↓...호남 반도체 산단 '연 7000억' 아낀다?
39세 이하라면 주목! 2억 빌려도 월 85만원...청년 주거지원 확 바뀐다
전남광주 기술자가 사라진다...5년 새 1,380명 감소

대표문의 : 062)370-7070